기요쓰 협곡: 대지와 눈이 자아내는 아름다움

기요쓰 강의 맑고 깨끗한 해빙수는 가미노아이 산과 시라스나 산 위쪽에서 흘러내려와 도카마치 중앙부에서 시나노 강과 합류합니다. 도중에 그 흐름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규모와 경관을 자랑하는 협곡인 기요쓰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일본 3 대 협곡 중 하나라고도 일컬어지는 기요쓰 협곡은 1941 년에 국가 명승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눈 덮인 자연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계곡은 산 사이로 12.5km 에 걸쳐 이어져 있으며, 높이 300m 에 달하는 V 자 모양의 험준한岩(がん) 절벽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절벽 측면에서 보이는 반복적으로 뻗어 있는 듯한 직선 무늬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형성되는 암석 구조의 일종인 주상절리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바깥쪽 용암이 안쪽보다 빠르게 냉각되어 수축되면서 냉각된 부분에서 수직으로 뻗는 균열이 형성됩니다. 냉각과 수축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균열이 깊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가지런히 늘어선 무수한 육각기둥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기요쓰 협곡에서는 약 260 만 년 전의 격렬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지층이 지표로 밀려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틀림과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희귀한 지층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한때 위험한 절벽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1988 년, 낙석 사고로 인해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길은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6 년에 길이 750m 의 보행자용 터널이 완공되면서 4 개의 전망대에서 협곡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 년, 이 터널은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예술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되어 '빛의 터널'로 알려진 인기명소가 되었습니다. 터널에 새로 추가된 아트 설치물로는 정밀하게 변화하는 컬러 라이트와 그 외 특수한 필름으로 코팅된 기포 형상의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이용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시선은 차단하면서 주변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설치물은 마지막 전망대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반짝이는 스틸 벽과 얕은 반사 풀을 통해 기요쓰쿄의 드라마틱한 물속 풍경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